



INAUGURAL MESSAGE

‘고객, 인류, 미래, 나눔’을 키워드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열다

정익선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취임, 영상메시지 통해 혁신비전 4개 키워드 제시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 여러분!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걱정,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 사업장의 그룹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이사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 그룹을 이끌어 주신 정몽구 회장을 명예회장님으로 추대하고 제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범현대그룹의 창업자이신 정주영 선대회장님, 현대자동차그룹의 오늘을 이룩하신 정몽구 명예회장님의 높은 업적과 깊은 경영철학을 계승해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을 느낍니다.
정주영 선대회장님께서서는 전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을 설립하시어 범현대그룹의 기틀을 마련하셨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정몽구 명예회장님께서서는 지난 2000년 자동차전문그룹으로 출범시키신 이후, 품질과 현장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개 국가에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현대·기아차를 글로벌 선도 업체로 성장시키고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 선진국 도약을 선도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서 이룩하신 숭고한 업적과 기업이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 19’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벌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와 이동의 제한으로 일상생활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합과 개방을 추구하는 세계화 흐름이 후퇴하여,

미·중간 무역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교역 환경과 경제 전망도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초래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물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미래 인류의 생활방식과 수요의 변화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산업 또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 그 결실들을 전 세계 모든 고객들과 나누면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 행복의 첫걸음은 완벽한 품질을 통해 고객이 본연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고객의 평화로운 삶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 성능과 가치를 모두 갖춘 전기차로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구현하겠습니다.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해 고객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도전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자동차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인류의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켜 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만들어갈 이러한 미래를 통해 고객에게 행복을 드리고, 임직원 여러분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국민들도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사업의 결실을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우리의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협력업체를 비롯한 사회와 다양한 이웃,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 활동들이 인류의 삶과 안전, 행복에 기여하고 다시 우리 그룹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 여러분!
우리 그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룹이 만들어온 성과는 창업자인 정주영 선대회장님과 정몽구 명예회장님을 비롯하여 정세영 회장님, 정몽규 회장님 그리고 김철호 회장님과 전·현직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미지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 되면 되게 만드는’ 창의적인 그룹 정신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업장의 임직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개척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룹의 성장과 다음 세대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다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역량이 존중받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는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소통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그룹의 새로운 미래가 많이 기대되고, 그 여정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yundai E&C 2025 Strategy” innovates construction paradigm

Our company aims to become a global top-tier builder by 2025

Our company sets out to increase our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Hyundai E&C 2025 Strategy” to boost our construction capability in tune with the fierce business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With the aim to make a big leap into a global top-tier builder by 2025, our company has come up with new investment strategies designed to secure future talents; manage construction sites with a focus on safety and quality; increase smart construction; and promote new businesses in order to ensure fundamental competitiveness and achieve profitable growth.

For the purpose of securing future talents, our company will increase the number of human resources in the design, future technology, safety and quality areas to 40 percent of total workforce.

As an effort to promote the safety- and quality-centered management of construction sites, we will concentrate on the maintenance of and the investment in safety organizations and systems at local and overseas project sites.

In addition, our company will work harder to lead the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based innovation on a constant basis. All construction sites



of Hyundai E&C will pursue fundamental changes by utilizing state-of-the-art digital equipment and establishing a data-based decision making

system.

Moreover, we will accelerate our efforts to promote new businesses in a way that expands the business scope to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investments based on our EPC competitiveness.

Meanwhile, our company has been recognized in term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and transparent management by obtaining an A rating for three consecutive years in the 2020 ESG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and governanc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현대건설 2025 전략 ‘미래인재 확보 및 안전·품질 투자’로 건설 패러다임 혁신 이끈다

2025년까지 글로벌 탑 티어 건설사 도약 목표 ... 본원적 경쟁력 확보·내실 있는 성장 목표

우리 회사가 치열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설 역량을 갖추기 위한 ‘현대건설 2025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리 회사는 2025년까지 글로벌 탑 티어 건설사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본원적 경쟁력 확보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미래인재 확보 ▶안전·품질 중심 현장 관리 ▶스마트건설 확대 ▶신사업 추진 등 미래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미래인재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설계·미래기술·안전·품질 분야

인력을 전체 인원의 4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전체 인원의 10% 정도였던 설계·미래기술 인력을 전체 인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품질 인력도 전체 인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한다.

또한 ‘안전·품질 중심의 현장 관리’를 위해 국내외 현장의 안전 조직 및 시스템 정비와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안전한 현장 구현을 위해 안전관리비용을 1000억원 이상 투자·확대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직책자의 안전자격증 취득도 의무화해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인원의 20% 수준으로 비율을 늘

릴 예정이다.

더불어 ICT 융·복합 기법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에 나선다. 전 현장에 드론, 3차원 안전·품질 인력도 전체 인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한다.

또한 ‘안전·품질 중심의 현장 관리’를 위해 국내외 현장의 안전 조직 및 시스템 정비와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안전한 현장 구현을 위해 안전관리비용을 1000억원 이상 투자·확대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직책자의 안전자격증 취득도 의무화해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인원의 20% 수준으로 비율을 늘

려 사업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수주잔고, 현금 유동성, 견고한 재무구조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만 수주 목표액의 약 74%인 18조5574억원을 달성했고, 수주잔고는 66조 2916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등급’에서 3년 연속 ‘통합등급 A등급’을 획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경영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2019년까지 10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에 편입된 것은 물론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서 7위에 걸쳐 세계 1위(Industry Leader)로 선정됐다.

이러한 성장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미래인재 확보·스마트건설 체질 혁신·신사업 추진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각 분야별 투자를 이어나가 건설 패러다임의 혁신에 앞장서는 한편, 실용인·공유지 제거·민첩한 조직 구축 등을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Online signing ceremony for the Malolos to Clark Railway Section 1

Our company held a ceremony to sign a deal to build the Malolos to Clark Railway Section 1 online on October 8 as part of keeping up with the recent uptrend.

The sig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Hyundai E&C’s executives including CEO Park Dong-wook, and the Philippines’ top-ranking officials including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ecretary Arthur P. Tugade.

“This online signing ceremony is considered an effective alternative to dealing with the coronavirus situation in a wiser way,” said an official of our company. “We will complete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er quality infrastructure facility with our accumulated technology and knowhow regarding railroad construction as we were awarded the deal amid such difficult global conditions.”

‘해외 공사계약 체결도 언택트 시대’ 필리핀 남북철도 1공구 공사 계약 화상 서명식

우리 회사가 10월 8일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Malolos to Clark Railway Project)’ 공사의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온라인 계약 서명식에는 우리 회사 박동욱 사장, 이해주 전무, 김기범 전무를 비롯해 필리핀 교통부의 Arthur P. Tugade 장관, Timothy John Batan 차관, Junn B. Magno 필리핀 철도청장 등 회사 관계자가 함께했다. 서명식은 참석자들의 계약 서명용 터치 스크린에 화상 에어컨 분리기 속에서 진행됐다.

우리 회사가 지난 9월 18일 수주한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프로젝트는 6700억원(9억7300만 달러) 규모로 당사는 3838억원(3억300만 달러/57.5%) 선이다. 우리 회사는 현지 업체인

‘메가와이드(Megawide)’, 토공 전문건설사 ‘동아건설’과 전략적 제휴로 경쟁력을 높였다.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는 마닐라 북부 말로로스(Malolos)와 클락(Clark)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53km의 남북철도 건설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우리 회사는 총 5공구 중 제1공구에 해당하는 공사를 맡았다. 프로젝트는 지상역사 2개와 약 17km 고가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온라인 서명식은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뤄낸 값진 결실인 만큼 현대건설의 축적된 철도 공사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해외 건설 현장에 의료진을 파견하다

우리 회사가 10월 2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의료진을 해외 건설 현장에 직접 파견했다.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은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무자의 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현지 병원 경영진과의 교류를 통해 협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2014년부터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및 SK건설과 합작법인을 구성해 이라크 바그다드 남서쪽 110km에 위치한 카르발라에서 정유공장 공사를 수행 중이다. 현재 이라크는 하루에 400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근무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회사는 현장의 일시적 작업 중단(셧다운), 직원 및 근로자의 본국 복귀·순환 근무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현장을 유지하며 철저한 방역과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와 서울성모병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해외 국가에 체류 중인 현대건설 및 협력사 직원 등을 위해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현장 직원들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현지 파견을 통해 현장의 의료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먼저 현장에서 운영 중인 클리닉의 현지 의료진을 교육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내 의료진의 근무자 대면 건강상담 시행을 통해 현장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원격 건강상담 서비스에 이은 국내 의료진 현지 파견이 해외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근무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roup News




New 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 to transform customer experience

Hyundai Motor Group (the Group) celebrated the groundbreaking announcement of the 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 (HMGICS) with a virtual ceremony on October 3. The center will act as an open innovation lab for the Group’s future mobility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the aim of revolutionizing the future mobility value chain. “HMGICS is a major step forward for Hyundai Motor. The facility i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world. It will pave the way for more Korean companies to invest here, partner with local suppliers and SMEs, and collaborate with ou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aid Singapore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Singapore’s goal is to have all our vehicles run on cleaner energy by 2040, in line with our Paris Agreement commitments. We hope this will open up new growth areas for our economy, and create exciting jobs for Singaporeans.” “Korea and Singapore have cooperated on multiple fronts and the HMGICS represents a new milestone in the continuing collaboration between our two nations,” said Sung Yun-mo, Korea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 will strive for ‘Human-Centered Value Chain Innovation for a Mobility Paradigm Shift.’ We will offer products and services tailored to customers’ needs,” said Hyundai Motor Group Chairman Chung Eui-sun. “I am confident the innovations that spring from HMGICS will shape our future global society for the better and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humanity.” Through HMGICS, the Group will realize its vision for human-centered mobility value chain innovation with three strategic directions.

Korea’s first odor management system

Our company has developed an odor management system, to be effective in environmental faciliti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new system named HOMS (Hyundai Odor Management System) was designed to manage odor concentration within and at the site boundary of food waste and sewage disposal facilities in real time and prevent odor dispersion.



It was applied for a patent in June this year.

국내 최초 악취관리시스템 홈스(HOMS) 개발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음식물 처리장, 하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효과적인 악취 관리 시스템 ‘홈스(HOMS: Hyundai Odor Management System)’를 개발했다.

홈스(HOMS)는 환경기초시설의 내부·부지 경계선의 악취 농도를 실시간 관리하고, 악취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6월 특허 출원을 마쳤다. 온도, 습도,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5가지 센서의 측정값을 바탕으로 복합악취를 감지하는 자체 알고리즘이 특징이다. 두 종류

이상의 냄새 유발 물질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복합악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특히 자체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기존 고가의 복합악취센서 대비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또한 홈스(HOMS)에는 차압제어 기술이 적용됐다.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 이 기능은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원활히 포집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 이 시스템은 ‘중주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 시험 적용해 우수한 악취 관리 효율성을 검증했다.

**‘2020~2021 시즌 V리그’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BELIEVE
IN YOURSELF!**

지난 시즌 현대건설 배구단은 통산 3번째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이미 손 싸움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어느 전설적인 양궁선수의 말처럼 좋았던 어제의 결과보다는 이제 눈앞의 경기와 현실에 집중해야 할 시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그동안 흘려온 열정과 밤의 결실을 맺을 차례다.

글=김종건 <스포츠동아> 전문기자 / 사진=현대건설 배구단 제공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시작된 2020~2021 시즌 V리그 첫 경기에서 현대건설 배구단(이하 현대건설)이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했다. 지난 10월 17일에 치러진 GS칼텍스와의 개막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것. 내년 3월 17일까지 팀당 30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의 출발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3시즌 동안 팀을 이끌었던 주전 세터의 얼굴이 바뀌었다. 세터는 모든 플레이에 관여하는 중요한 자리로, 세터가 달라지면 팀플레이의 많은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 현대건설은 V리그 경력 1년차의 베테랑 이나연을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속공 열선에 장점이 많은 선수로, 명 세터 출신의 이도희 감독은 비시즌에 이나연을 팀플레이어에 어울리는 세터로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다. 여기에 지난해 순천-KOVO컵에서 우승을 안겨준 4년차 김다인도 있다. 감독은 이번 시즌과 달리 2명의 세터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팀을 이끌려고 한다.

황민경-고예림, 영혼의 조함과 든든한 리시브

팬들은 선수들이 때리는 스파이크에 환호하지만, 감독은 상대의 공을 받아주는 리시브와 수비에 더 신경 쓴다. 원하는 선수가 한정된 V리그 FA선수 영입시장에서 현대건설은 레프트 황민경과 리베로 김연경을 지켜냈다. 지난 시즌 첫 주장을 맡았던 황민경은 고예림을 현대건설로 영입할 때 큰 역할을 했다. 지난 시즌 현대건설의 리시브 효율은 31.33%로 전체 4위, 탄탄한 뒷받침 덕분에 공격 성공률은 39.33%로 전체 2위였다. 황민경과 고예림이 함께 뛰어 506득점을 합작해 냈다. 두 선수가 함께하며 현대건설 배구는 기초가 탄탄해졌다. 여기에 2011~2012 시즌부터 현대건설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한 리베로 김연경도 있다. 지난 시즌 막판에 부상을 당했지만 구단은 그의 역량을 믿고 있다. 4년 만에 전정탑으로 복귀한 리베로 김주하도 뛸줄을 수 있다. 4명의 선수가 리시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의 대들보, 양효진이 이끄는 센터

상대팀이 현대건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중앙에 있다. 14시즌째 센터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양효진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 시간차와 블로킹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을 써가고 있다. V리그 통산 득점부분 선두로 지난 시즌 후배들을 독려해 가며 코트를 뛰어다니는 덕분에 MVP에 선정됐다. 센터 포지션으로는 역대 두번째 수상으로 그만큼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시즌에도 양효진은 3년차 정지윤, 2년차 이다현과 함께 여자부 최강의 구성으로 중앙을 지킨다. 정지윤은 빠른 점프로 중앙 오픈공격이라는 새로운 플레이를 만들어냈다. 공격 역량을 비해 리시브가 약한 정지윤의 장점을 살려내기 위한 이도희 감독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공격 옵션이다. 여기에 정통 센터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이다현이 장과 방패를 들고 중앙에서 함께 버틴다. 지난 시즌 현대건설 센터들은 유일하게 2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속공 성공률은 50.78%로 압도적인 1위다. 블로킹도 세트 평균 2.466개, 259득점으로 1위였다. 이들이 부상 없이 시즌을 버텨주면 현대건설의 봄 배구 가능성은 높아진다.

터키 리그 베스트7에 빛나는 헬레네 루소


현대건설은 벨기에 국가대표 출신 헬레네 루소를 외국인 선수로 뽑았다. 그는 터키 리그에서 베스트7에 뽑혔을 정도로 국제 배구계에서 명성이 난 선수다. 공격력도 빼어나지만 배구 이해력이 더 뛰어난 외국인 선수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지 않고 국내 선수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추구하는 이도희 감독의 성향이 딱이다. 시즌의 전초전인 제천-KOVO컵에서 루소는 빠른 공격 결정력과 센스를 보여줬다. 수비-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기량을 갖춘 팀의 플레이 스타일과 잘 어우러졌다. 오랫동안 팀을 거쳐 간 수많은 외국인 선수를 지켜왔던 양효진도 “좋은 선수가 왔다”고 말했다. 기량도 기량이지만 동료들과의 융화, 적극적인 성격도 합격적이다. 이도희 감독은 “수비 훈련 때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해서 자체시킬 정도”라면서 성실한 태도를 칭찬했다. 원래 포지션은 레프트지만 황민경, 고예림과의 공존을 위해 라이트에서 주로 활약할 예정이다. 이도희 감독은 이들 3명의 wing 공격수에 더해 센터 정지윤을 라이트로 투입하는 플랜B도 준비 중이다. 이 경우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센터 이다현의 이동공격을 더 자주 활용할 수 있어 공격 옵션이 늘어난다. 이도희 감독은 긴 시즌 동안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줄이면서 상대에 특화된 토털 배구로 통산 8번째 봄 배구에 도전한다. 현대건설 배구단이 이번 시즌 경기에 될 모든 여건은 다 갖췄다. 이를 증명하듯 시즌 첫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다. 현대건설은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19-25/25-22/25-21/20-25/15-9)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코로나19 탓에 관중들이 마음껏 경기를 찾아 응원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쉽지만 선수들은 시즌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직관 대신 랜선응원!

참여방법
1. 모바일, PC에서 ZOOM 다운로드 후 설치
2. 경기 2시간 전 구단 SNS를 통해 접속 링크공유
3. 구단 SNS 접속링크 클릭 → 자동접속

참여인원
50명(신청순)
#랜선응원하고 이벤트를 참여하자
이벤트1 실시간 응원메시지
이벤트2 실시간 퀴즈대답
이벤트3 선수단 미니 팬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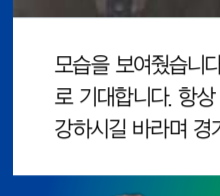
1 2020~2021 시즌 V리그 첫 경기에서 점수를 내고 환호하는 현대건설 배구단 선수들의 모습. 2 현대건설 배구단의 고예림 선수가 두 팔을 벌려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3 KOVO컵 경기에서 정지윤 선수가 점수를 내고 기뻐하고 있다. 4 KOVO컵 경기에서 루소 선수가 김주하 선수에게 엄지손가락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모습. 5 현대건설 배구단 선수들(왼쪽 상단부터) 양시연, 한미로, 전하리, 이다현, 헬레네 루소, 양효진, 정지윤, 정시영, 황연주, 이영주, 김다인, 박지우 (왼쪽 하단부터) 이나연, 김현지, 황민경, 김연경, 김주하, 고예림 선수.



Interview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도희 감독
Q 19~20 시즌 정규리그 1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던 임직원분들이 있어 선수와 코칭스태프들이 힘겨운 좋은 성적을 이뤘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기억을 이번 시즌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Q 이번 시즌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세트 교체로 선수들 간 세트와 공격수들의 호흡을 맞추는 팀플레이에 중점을 두고 훈련했습니다. 정지윤 선수가 지난 시즌 센터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센터 또는 라이트 포지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상 따뜻한 응원을 해주셨던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모두 건 강하시길 바라며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할 수 없더라도 늘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넘을 수 없는 블로킹 양효진 선수
Q 19~20 시즌 MVP로 맞이하는 이번 시즌 각오는?
MVP라고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은 더욱 팀원들과 함께 즐기는 배구를 하고 싶습니다.



Q 은라인 중계를 볼 팬들이 배구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꿀팁은?
직관할 때의 생동감은 없었지만, 중계진의 해설과 함께 경기를 보면 눈치는 부분 없이 집중해서 배구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 하루 빨리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기를 뛰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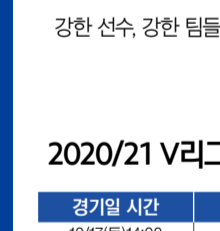
강력한 서브가 전매특허 황민경 선수
Q 주장으로서 각오와 팀 선수들에게 한마디?
매 경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팀원 모두 힘든 훈련 과정도 밝은 분위기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 분위기 그대로 이번 시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Q 자신만의 경기 관전 노하우가 있다면?
선수가 왔다고 상상해 보시면 어떻까요.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느끼며 조금 더 몰입해서 경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리시브 큰 고예림 선수
Q 어떤 부분이 신경 써서 훈련했는지, 이번 시즌 각오는?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기 위해 세트와 호흡을 많이 맞추면서 연습했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 웨이트 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모든 방향으로 지난 해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파이팅!



현대건설의 숨은 열쇠 루소 선수
Q 현대건설 배구단에서 뛰어 보니까 어떤지?
현대건설에서 뛰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현대건설 배구단에게 가게 됐을 때 이다현-김연경 선수가 최고의 팀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나 문화를 몰라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팀 분위기와 선수들도 잘 도와주셔서 재미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 분위기에 매우 만족합니다.



Q 이번 시즌 각오 한마디?
강한 선수, 강한 팀들도 많지만 기복 없이 좋은 경기력으로 우승까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21 V리그 경기일정

경기일 시간	대결팀	경기일 시간	대결팀
10/17(토)14:00	GS칼텍스	1/10(토)16:00	KG인삼공사
10/23(토)15:30	도로공사	1/16(토)19:00	흥국생명
10/30(토)15:30	IBK기업은행	1/22(토)19:00	IBK기업은행
11/01(토)19:00	흥국생명	1/29(토)19:00	도로공사
11/08(토)16:00	KGC인삼공사	2/05(토)19:00	GS칼텍스
11/14(토)16:00	GS칼텍스	1/21(수)19:00	도로공사
11/17(토)19:00	IBK기업은행	1/31(일)16:00	흥국생명
11/22(일)16:00	흥국생명	2/06(토)16:00	KG인삼공사
11/29(일)16:00	KGC인삼공사	2/09(토)19:00	GS칼텍스
12/01(토)19:00	도로공사	2/13(토)16:00	IBK기업은행
12/08(토)19:00	도로공사	2/20(토)16:00	KG인삼공사
12/12(토)16:00	KGC인삼공사	2/26(토)19:00	KG인삼공사
12/19(토)16:00	GS칼텍스	3/05(토)19:00	GS칼텍스
12/26(토)19:00	IBK기업은행	3/09(토)19:00	흥국생명
12/29(토)16:00	흥국생명	3/14(토)16:00	도로공사

승리의 현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채널

우리 회사 배구단의 생생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채널들. 선수들의 멋진 활약상부터 경기&시즌 리뷰, 발달한 인터뷰 영상까지 콘텐츠를가 풍성하다. 평소 야구배구에 관심 있던 사람도 채널들을 보다 보면 입덕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튜브
 N 포스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현대건설만의 기술력으로 강남에 새로운 마천루를 세우다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
남측으로는 테헤란로, 동측으로는 언주로가 교차하는 강남 중심부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건설되고 있다. 무 역과 금융, 의료와 문화 시설이 집약된 테헤란로에서 오랜 시간 터줏대감의 자리를 지켜온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 이곳에 대한민국 글로벌 산업의 흐름을 선도 할 초대형 복합 프로젝트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글=이진우 / 사진=이슬기 / 현장리포트=강한웅 책임매니저, 강민구 매니저



정밀한 구조 계산을 요하는 신공법으로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새로 그린다

높고 낮은 건물이 즐비하고,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활발한 도심지 한가운데, 연면적 23만9100㎡, 지하 7층~지상 35층, 36층 빌딩 2개 동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 건수권 건축가의 작품으로 강남 호텔의 명맥을 이어온 옛 르네상스호텔 자리에 오피스, 호텔, 상업·문화 시설이 결합된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서게 되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두 동의 건물은 최고 높이 158.9m로 빌딩숲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상당하다. 우리 회사(지분 40%) 주관으로 현대엔지니어링(30%)·대우건설(30%)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현장은 2016년 12월 착공 이후 내년 1월 본공사 준공을 앞두고 마감 및 조정 공사에 집중하고 있다.

오피스와 주택단지가 인접해 소음과 분진이 취약하고, 장비나 자재의 유출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 공사 규모가 큰 도심지 공사인 데다 철거를 포함한 본공사 기간이 49개월에 불과한 공기는 현장의 난관이었다. 게다가 기존 르네상스호텔을 철거한 후 더 깊고 높은 빌딩을 올려야 하기에 고민이 깊은 상황.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기준을 넘어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이에 현장과 사업본부, 연구개발본부가 치열한 시화와 논의의 거듭한 끝에 철거와 톱다운(Top down) 공사를 병행하는 '서포트 공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톱다운은 시공기준층 공사 후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시공하는 공법으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어 도심지 공사에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현장은 기존 건물의 지하 구조물이 대규모로 남아 있어 전면 철거 후 기초공사부터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철거와 톱다운을 병행하는 '서포트 공법'이다. 이는 기존 지하 시설물을 지지대 삼아 '책 서포트'와 '빔 서포트'를 가설해 슬래브를 형성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성 제품

인 책 서포트와 달리 빔 서포트는 주문제작 자재로, 더욱 견고하게 제작이 가능해 충고를 높이 형성할 수 있었다. 중장비 하중을 견디기 위해 기존 슬래브 위로 콘크리트를 두껍게 덧대 안전성을 확보하고 옛 르네상스호텔의 외벽을 흠막이로 활용해 원가절감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 공법을 대규모 건축 현장에 적용한 건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현장이 국내 최초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매우 정밀한 구조와 응력 계산이 필요하고 공사 시에도 실시간으로 하중을 계속하며 대비해야 하는 등 유의점이 많아 현장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다.

2개 동이 올라가는 빌딩의 구조도 특이하다. 저층부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지상층은 포스트텐션(Post-tension)을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복합적으로 채택했다. 두 가지 구조를 합치는 경우도, 거의 모든 슬래브에 포스트텐션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터라 이목을 끌었다. 포스트텐션은 콘크리트 타설 전 미리 설치한 강연선을 콘크리트가 굳어 단단해진 후 인장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하면 슬래브의 응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동 간격을 넓히고 보의 깊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충고를 높여 일반 오피스보다 개방감을 확보했다. 콘크리트 경화 시간을 확보하고 골조 완료 시기에 맞춰 외벽 커튼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더욱 유기적인 공정 진행은 필수였다.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현장의 핵심은 안전과 품질에 대한 능동적 책임감

강남 지역 심장부의 대규모 건설 현장. 르네상스호텔이 이어온 역사 위에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운집할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소한 일에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현장은 막중한 책임과 분진에 대한 집중으로 공사에 임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이슈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현장 임직원의 능동적, 선행적 책임감 덕분이다.

이는 본격적인 공사 시작 전부터 빛을 받았다. 주변으로 오피스와 아파트 단지, 주택 밀집 지역이 모두 가까워 민원이 산재한 상황. 작업 시간 조정



1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 중인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현장. 2 건물 옥상에 오르면 동서남북으로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3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외벽. 타워의 고층부는 유닛 시스템을, 저층부는 스틱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적용했다. 4 넓은 기동 간격과 높은 충고, 통창으로 개방감을 확보한 오피스 내부. 5 내년 상반기 오픈을 앞둔 신세계조선호텔 룸의 모크업(Mockup) 실물 모형.

이나 공법 변경으로 부족한 경우, 주말 밤낮없이 민원인을 만나 협의점을 찾았다. 현장 임직원들은 민원 해결에는 완도가 없다며 오직 '진심'으로 현장과 민원인을 대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차량과 인구의 이동이 잦은 현장 주변, 공사하는 건물과 인도 사이 간격은 불과 5m 남짓. 펜스나 나하방막 등 안전시설을 갖췄지만, 흑시나 하는 위험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시민을 지키기 위해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외부 안전통로를 구축했다. 규제나 권고 사항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었기에 이를 계기로 유관 기관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근로자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현장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힘써왔다. 그 결과 올해 안전보건공단(이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외에도 하이오스(Hios-현대건설이 개발한 사물인터넷 기반 현장안전관리시스템)의 타워크레인 간 충돌방지, 타워크레인 풍속 측정, 가스 농도 누출감지, 흙막이 기시설 붕괴방지 시스템 등의 기능을 통해 현장과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현장은 현재 공정을 91.75%로 바쁘지만 순조롭게 공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애초에 골기가 넉넉지 않았던 데다, 공정 중간중간 2018년에 발주처가 한 번 바뀌는 등 어려운 상황도 겪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사업의 특성상 다수 클라이언트 요구에 의한 잦은 설계 변경에 대응하다 보면 촉박한 상황에 맞닥뜨리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의 역량과 다양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일궈낸 시너지 덕분일 것이다.

수주 시 고려해야 할 기업 이윤, 공사 시작 전 민원 관리, 공사 진행 중 안전,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건축물과 함께 남는 가장 핵심은 결국 사용자가 몸소 느끼게 될 '품질'이다.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현장이 이 본질에 골짜기 집중하고 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호텔 내부 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되면 신세계조선호텔의 최상급 호텔 브랜드가 오픈한다. 또한 IT·금융·유통 업계 등의 굴지 기업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기반을 잡을 예정이다.

New skyscraper in Gangnam area under construction

The Teheran-ro 237 development project conducted by Hyundai E&C is a mega-sized complex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expected to lead a global industrial trend in Korea. The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a park and two buildings of seven basement levels and 35 and 36 floors above ground on the floor area of 239,105 square meters. The new landmark will provide offices, hotels, and various commercial and cultural facilities. Currently, the construction site is putting its all-out efforts to wrap up the main construction and execute the landscaping work in a bid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project in January 2021. The construction commenced in December 2016.

For the construction site to secure safety and quality, an innovative alternative was needed. After repeated trials and discussions among the construction site, the relevant business division and the R&D Center, they decided to apply the support method where they conduct the demolition work and the top-down construction method at the same time. In the support method, the existing underground facilities are used as supports to temporarily install jack supports and beam supports and then construct slabs.

The Teheran-ro 237 development project is the country's first construction project in that the support method is applied to such large-scale construction site. As extremely precise structure and compressive stress calculation are needed, and loads should be measured in real time, the construction site had to remain vigilant all the time to address a wide range of issues to be considered.

What is more special about the project lies in the application of two different structures: Steel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were adopted for lower floors, and post-tension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for higher floors. This construction method drew more attention due to not only the combination of the two structures but also the fact that there are only a few construction projects where post-tensioned concrete structures are applied to almost all slabs.

In an effort to protect passengers from possible dangers, the construction site built an outside safety passage after being granted the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a road. This construction process was neither recommended nor compulsory. Instead, they took the proactive measure to secure safety, which enabled them to gain strong confidence from relevant public agencies.

Moreover, the construction site has strove to offer education programs aimed to improv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their workers and put an emphasis on the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site was selected as the "excellent workplace promoting workers' health" by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KOSHA).

Great people interview



Q. 자기소개 바랍니다.

심재학 현장소장(이하 심 소장) 1990년 입사 이후 현대중공업 마복리 기계전기연구소, 삼호중공업 본관, 현대자동차 천안연수원 등의 현장을 거쳐 2018년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현장에 부임해 현장소장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사업지원팀장(이하 고 팀장) KT목동IT센터, 현대엘리베이터 초고속 테스트 타워, NH통합IT센터 등의 현장과 본사 건축공공사업팀에서 근무하며 현장과 본사를 아우르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2016년, 수주 시 TF 때부터 근무한 타라 애착이 깊습니다.

방국영 안전관리팀장(이하 방 팀장) 저는 우리 현장의 안전관리팀장으로 2017년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복리 군인공제 조합 아파트, 목동그랜드4타워, 체계천 복합사업, 암사대교 현장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습니다.

김상현 품질관리팀장(이하 김 팀장) 부산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목동 하이패러존1, 이대목동병원,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현장을 거쳐 2018년 우리 현장에 부임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근무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김 팀장 특성상 일반 오피스 범주에 시공하다가 입점업체가 확정되면 그에 맞춰 환경이나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잦은 편입니다. 한정된 골짜기 쉽지 않았지만 잘 해내고 있는데요. 이번 경험을 우리 회사의 시공 노하우로 녹여내 하나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방 팀장 대도시 한가운데 고층빌딩을 올리는 현장이라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모든 작업이 능동적으로 안전에 신경 쓰기에 큰 사고 없이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무사히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심 소장 지금껏 잘 해온 만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열심히 해왔으니 준공 후에도 발주처와 OM, 그리고 모든 현장 관계자에게 좋게 기억되는 현장으로 남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현장이 개발사업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 팀장** 크게 주목 받은 현장이라 어깨가 무거웠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한 덕에 잘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과 이시자사선용, 우리나라 최고 회사들이 좋은 새너제를 낸 것 같아요. 우리 현장이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YUNDAIE&C × ARTIST 5 '건설 안전모에 대한 예술적 상상'

브랜드 캠페인 건설은 상상이다. 사막의 장미를 표현한 비정형의 박물관, 바다를 가르는 50km에 이르는 세계 최장급 해상교량, 바다 밑 150m 지하에 만든 초대형 해저 유류비축기지- 영화 속에 서만 등장하던 것들이 '현대건설'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된다. 우리 회사가 10월 21일 공개한 'IMAGINATION 캠페인'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설의 힘'에 주목하고 있다. 글=박현희

평범한 안전모의 아주 특별한 변신!

안전모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호구다. 우리 회사가 10월 21일부터 진행 중인 'IMAGINATION 캠페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업역(業域)을 확장하고 있는 5명의 젊은 아티스트에게 현대건설 CI가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평범한 안전모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하는 시도는 우리 회사에는 혁신, 아티스트들에게는 특별한 도전이었다. 아티스트들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를 하나의 오브제(Object)로 활용해 예술 작품으로 승화했다. 예술과 무관해 보이는 안전모를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해 작품화함으로써 새로운 느낌과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디오라마(Diorama, 풍경이나 그림을 배경으로 두고 축소 모형을 설치해 하나로 배치하는 것) 디자이너 '안정훈'은 친환경 미래도시를 지구를 연상시키는 반구형의 안전모 위에 구현했다. 일러스트레이터 '아리'는 귀엽고 사랑스런 일러스트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이용자가 사용 방법과 기호에 맞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거나 기능을 변경함)해 '합'한 안전모로 변신시켰다.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열킨(ul:kin)의 디자이너 '이성동'은 가족의 옷을 재활용해 안전모에 따뜻함을 덧입히고, 동양화가 '임보영'은 자연을 반영한 그림으로 힐링을, 건축가 '김이홍'은 건설에 튼튼함과 신축성 있는 소재를 집목해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제시했다.

우리 회사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5인5색의 이색 작품과 제작 과정을 온라인 전시 형태로 대중에 공개했다. 온라인 전시는 현대건설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c/현대건설tv>)와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my_hillstate)를 통해 상시로 감상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현대건설을 만난다?

우리 회사의 상상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건설업 최초로 증강현실을 활용한 인스타그램 AR 필터를 특별 제작한 것이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촬영 시 얼굴을 인식해 그래픽을 더하

는 인스타그램 AR 필터는 ▶현대건설 글로벌 랜드마크 투어(Landmark) ▶현대건설 상상랜드 패밀리(Family) ▶현대건설 매거진 포지모 델(Magazine) 등 3개 버전으로 제작됐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를 포함해 다양한 세대가 우리 회사의 상상력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인스타그램 이벤트와 유튜브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너의 상상력을 보여줘!'라는 부제가 붙은 인스타그램 이벤트는 현대건설 인스타그램 계정(@hdec_style)을 팔로우하고, 공개된 필터를 활용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대건설 #상상력챌린지 #건설은상상력 등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피드나 스토리에 게시하면 된다. 유튜브 댓글 이벤트는 2020년 브랜드 캠페인 영상에 '좋아요'와 '응원 댓글'을 남기면 끝. 인스타그램·유튜브 이벤트는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시 에어팟프로(5명), 열킨 티셔츠(15명) 등 풍성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홍보실 담당자는 "최근 화두인 언택트 트렌드에 맞춰 색다른 아티스트 콜라베이션 작품과 가상 경험을 통해 고객이 보다 친근하게 건설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업계 최초로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건설업을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향후 SNS를 포함한 디지털 마케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18년부터 웹드라마 <설레는 직딩청춘, 현대건설>, 키썬 뮤직비디오 <Make Your Own Style>, 사진전 <건설 is 열정: 현대적인 삶, 건설적인 사람> 등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며 딱딱한 건설회사의 이미지를 벗고 보다 친근하게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현대건설 브랜드 캠페인 'IMAGINATION'은 현대건설 공식 네이버 블로그, 현대건설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대건설 공식 페이스북과 현대자동차그룹의 SNS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전시관 ▶ 이벤트 참여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5명의 젊은 아티스트가 말하는 '현대건설'

Illustration

일러스트레이터 아리

"현대건설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작업에 들어갔어요. 패션 아이템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캐주얼한 작품을 만들려고 했죠. 평소 일상적인 그림이나 여성을 자주 그리는 데 처음으로 근로자, 남자를 많이 그렸어요. 덕분에 재미있고 특별한 챌린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Fashion

패션 디자이너 이성동

"안전모를 쓰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어요. 작품에서는 가족사진과 함께 여러 옷이 조각돼서 결합된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안전모가 일하는 사람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죠. 저에게 도전이란 실행인데, 이번 협업은 그야말로 의미 있는 '도전적 실행'이었습니다."



Diorama

디오라마 디자이너 안정훈

"현대건설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건축물도 많이 짓잖아요. 그런 행보가 보일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구성했고, 건설사와의 콜라베이션인 만큼 내구성에도 특히 신경 썼어요. 평소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도전의 아이콘인 현대건설에서 협업하자는 제안을 받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Architecture

건축가 김이홍

"단단하고 안전하고 보수적인 현대건설의 기존 이미지에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더했어요. 협업을 하며 기능적인 구조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건축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현대건설과 제 작업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세월 업계를 선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저 역시 그 꾸준함을 닦고 싶습니다."



Painting

동양화가 임보영

"현대건설의 역작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사막의 꽃과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설해 온 것이 인상적이었죠. 평소 현대건설을 거대하고 육중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람을 치유하는 편안한 회사구나'라고 깨달았어요. 평면이 아닌 반구형에 작품을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도전이 됐어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 헤밍웨이와 떠나는 프랑스 파리

랜선 인문학 여행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는 광고 카피가 심금을 울리는 요즘이다. 여행이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여행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낯선 경험’이 ‘감정’과 함께 기억으로 저장되는 형태를 말한다. 아쉽게도 당분간은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장소’가 빠진 랜선으로 여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충분히 대리만족은 할 수 있다. 글=박소영 리얼인문학 대표



예술가의 작품은 그 예술가의 다른 모습이다. 작품을 볼 때 창작자의 인생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작품 이해가 쉬워진다.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의 작가, 문학계의 스타일리스트로 불릴 만큼 독창적인 문체를 탄생시킨 작가 헤밍웨이. 그의 작가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프랑스 파리로 랜선 여행을 떠나보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헤밍웨이의 청년 시절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99년에 미국 오크파크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의사인 아버지는 자연을 사랑하며 낚시와 사냥을 즐겨 했고, 어머니는 예술가적 재능을 듬뿍 지닌 오페라 가수였다. 청년 시절부터 작가가 되고자 마음먹었던 헤밍웨이는 일부러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그 후 <캔자스시티>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다. 그는 훗날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터득했다고 회상한다. 그의 상징과도 같은 주어와 동사만을 사용한 심플한 문장의 토대는 이 때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헤밍웨이는 자원입대한다. 이탈리아에 파병된 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폭탄이 터져 다리 전체에 파편이 박힌 것. 그는 이때 스스로를 죽었다 살아났다고 표현했다.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아그네스’라는 첫사랑을 만나게 된다.

예술가의 인생에서 어머니 혹은 첫사랑이 뮤즈로 영감을 주는 것을 많이 보는데, 헤밍웨이 역시 아그네스를 모델로 하여 훗날 『무기여 잘 있거라』를 집필했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으레 그렇듯이 안타깝게도 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파리 생제르맹의 무명작가 헤밍웨이

헤밍웨이는 미국에 돌아와 엘리자베스 헤들리라는 여성과 결혼한다. 그리고 <토론토스타> 신문의 특파원이 되어 그의 작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파리로 향한다.

파리에 도착한 헤밍웨이는 지성인들의 아지트인 생

제르맹 근처 라탱 지구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던 당시에 꼭대기 층은 제일 값싼 곳이었다.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하는 낡고 추운 이곳에서 헤밍웨이는 배고픈 작가로서의 삶을 이어간다. 새벽에 일어나 연필부터 깎고, 습작을 해온 헤밍웨이는 점심시간이면 때때로 집 근처의 뤼상부르 공원으로 향해 산책을 즐겼다.



헤밍웨이는 이 공원을 거닐며 그만의 문체를 구상한다. 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인 ‘빙산 문체’란 작가는 빙산의 일각처럼 겉에 드러난 팩트만을 건조하게 얘기하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그 빙산 아래 숨겨진 함의까지 전부 다 캐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노인과 바다』의 첫 단락을 보면 평생 고기잡이를 해온 노인이 84일간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는 문장이 나온다. 여기서 작가는 팩트만을 나열할 뿐 이 노인의 상태나 감정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접하는 독자는 저절로 노인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비울 것을 모두 비워내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 독자에게 그 너머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헤밍웨이의 문학살롱

훌륭한 작가가 되는 데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일까. 보통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말을 한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많이 읽는 것이다. 많이 읽어야 좋은 글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표현해낼 여지도 생긴다. 헤밍웨이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도움을 준 서점 역시 파리 생제르맹에 있었다. 당시 돈이 없는 헤밍웨이는 책을 구입하기는커녕 빌려 읽을 보증금도 없던 처지였다. 이때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의 주인 실비아 비치는 헤밍웨이에게 책을 무료로 빌려주고 따뜻한 위로도 잊지 않았다. 이 서점 덕분에 헤밍웨이는 훌륭한 작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비록 위치는 그때와 다르지만,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은 지금도 노트르담 성당 옆

에서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헤밍웨이는 이 시절 어디에서 글을 썼을까. 놀랍게도 지금의 프리랜서 작가들처럼 그도 주로 카페에서 글을 썼다는 점이 흥미롭다. 생활하고 있는 집은 너무 시끄럽고 추운데다, 새로 태어난 아들 짝 때문에 글쓰기가 불편해 그는 따듯한 카페 ‘레 뒤 마고’로 간다. 레 뒤 마고란 두 인형을 뜻하는

데 그 이름처럼 카페 내부에는 아시안 인형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생제르맹에 자리한 이 유서 깊은 카페는 헤밍웨이 말고도 훗날 알베르 카뮈와 사르트르의 단골카페가 되면서 수많은 노벨상 작가를 배출해낸 전설의 카페가 되었다. 당시 이 카페에서 헤밍웨이는 글도 쓰고 『올리시스』의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와 술도 마시는 등 파리 시절 내내 애정하며 자주 방문했다.

헤밍웨이는 파리 시절 파블로 피카소, 제임스 조이스, 스코트 피츠제럴드 등과 우정을 나누며 예술적 안목을 키운다. 매일매일 치열한 습작을 이어가던 그는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를 펴내며 그동안의 무명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을 키워준 파리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를 시작으로 헤밍웨이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을 출판하며, 20세기의 전설이 된 문학 스타일리스트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그는 스스로 삶을 끝내기 전, 회고록을 집필 중이었다. 『Moveable Feast(한국어판 제목: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제목으로 파리 시절을 회상한 글인데, 현재 미완성 원고 그대로 출판됐다. 이 위대한 작가가 사망하기 직전에도 그토록 그리워했던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다. 헤밍웨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말한 파리, 자신의 대학이었으며 영원한 애인이었다고 얘기한 파리! 위대한 작가 헤밍웨이를 만든 그곳, 지금은 랜선으로 파리를 돌아보지만, 곧 여행이 자유워지면 프랑스 파리의 생제르맹과 뤼상부르 공원을 거닐며 그의 문장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1 헤밍웨이의 마음의 안식처, 프랑스 파리. 2 1899년에 태어난 작가는 1961년 생을 마감한다. 3 작가만의 독특한 문체 구현에 도움을 준 뤼상부르 공원. 4 7년간의 작가에게 공짜로 책을 빌려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 5 위대한 작품이 탄생한 카페 ‘레 뒤 마고’. 그는 이곳에서 치열한 습작을 이어갔다.



깊어가는 가을을 오롯이 느끼는 법 요즘 대세 '차박캠핑' 어떠세요?

차박(車泊)은 설치형 텐트를 사용해 야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캠핑과 달리, 오로지 차 안에서 자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범주에서는 캠핑카 혹은 차량을 숙박시설로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형태를 포함한다. 그러나 캠핑카는 오토캠핑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차박은 자가용을 활용한 숙박으로 통용되는 편이다.

Step 1 차박캠핑 입문하기

차박의 최고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차를 세워 자유롭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량 후미에 텐트나 타프 등의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라면 야영과 취사가 가능한 야영장에서만 가능하다. 또 화장실과 씻는 문제는 공용화장실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박지를 정할 때는 미리 주변에 공용화장실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차박은 반드시 SUV 차량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폴플랫 가능 여부가 관건으로, 바닥이 평평하고 누웠을 때 본인 키보다 살짝 넉넉한 공간이면 된다. 차량이 해차박·왜건·SUV 형태인 경우 뒷좌석을 접거나 펼치면 트렁크 공간이 확장돼 잘 공간이 생기므로 차박에 유리하다.

뒷좌석을 접거나 펼친 후 트렁크와 이어지는 부분에 단차가 생긴다면, 이를 메워 평평하게 하는 '바닥 평탄화'에 신경 써야 한다. 매트 깔면 어느 정도 완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단차가 크다면 이불이나 부피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공간을 메워준다. 필요시 목공소에서 패널로 제작할 수 있으나 3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든다.

첫 차박 준비물로는 자충 매트와 이불(침낭)을 추천한다. 5cm 정도의 매트는 폭신하기도 하지만 가을, 겨울철 한밤의 한기도 어느 정도 막아준다. 덮을 것으로는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가거나 침낭을 준비하면 된다. 추위를 많이 탄다면 핫팩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자. 이외 준비물은 첫 차박 후 본인의 니즈에 맞게 구입하자.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다.

Step 2 나에게 맞는 차박 스타일 찾기

혼자라면 비교적 선택지가 많지만,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차박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관건이다. 통상 솔로 차박을 즐기거나 대형 차량을 이



현대자동차가 최근 선보인 차박 체험 플랫폼 '휠핑(Wheelping)'. 사진 속 차량은 현대자동차 '더 뉴 쏘라타'이다.

용하는 커플은 스텔스 차박을 선호한다. 커플이라도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싶거나 4인 가족이라면 주로 확장형 차박을 선택한다. 우리나라는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보통 가족 혹은 커플 단위이기 때문에 확장형 차박 형태가 주를 이룬다.

•스텔스 차박(솔로/커플 추천) 외부에 별다른 장치를 하지 않아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티 나지 않게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확장형 텐트 등의 기타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기동성이 좋고, 차박지 선택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확장형 차박(커플/가족 추천) 스텔스 차박과 달리 차량 외부에 확장형 장비를 설치해 거주 공간을 넓힌 차박 형태다. 확장형 장비로는 차량 지붕 위에 있는 루프탑 텐트, 차량 후미에 연결하는 도킹 텐트가 대표적이다. 거주 공간의 확장 덕분에 차량 크기에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4인 가족이라도 차박에 무리가 없다.

•캠핑카(모두의 로망) 캠핑카는 캠핑을 사랑

여행칼럼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다. 집콕에 지친 사람들은 가능한 사람 없는 곳으로 언택트 여행을 추구한다. 차박캠핑이 대세가 된 이유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차박 성지는 사양이다. 아는 사람들만 알음알음 찾는다는 그곳. 나만 알고 싶은 비밀 차박지를 찾아 깊어가는 가을을 오롯이 느껴보자.

글·사진=홍유진 『오늘부터 차박캠핑』 작가

하는 이들의 로망이다. 차 안에 침실, 주방, 거실, 화장실까지 모두 마련돼 무빙 홈(Moving Home)으로 손색없다. 그러나 엄청난 덩치 때문에 차박지 선택의 폭이 좁다. 무엇보다 평소 주차할 곳이 마땅찮고, 유지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Step 3 초심자를 위한 차박지 분류

차박지의 특성을 알면 원하는 차박지를 찾는 일이 좀 더 쉬워진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차박지로 ①유료 차박지 ②고속도로 휴게소 ③무료 차박지 등 3가지가 있다. 휴양림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유료 차박지는 안전하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단, 사전에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주말에는 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안전하면서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화장실이 대체로 깔끔하고 늦은 밤에도 조명이 어느 정도 밝은 데다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니 비교적 안전한 편이

다. 편의점과 식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안산 시화나래휴게소, 행담도휴게소, 강원 내린천휴게소, 흥천휴게소 등은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함께 있어 하루 머물러 갈 차박지(스텔스)로 손색없다.

무료 차박지는 기본적으로 야영과 취사가 허가된 산, 들, 강변, 바닷가 등을 말한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곳을 찾으려면 초반에는 꽤 발품을 팔아야 한다. 취향에 딱 맞는 곳을 찾았는데 야영이 금지된 곳일 수도 있고, 화장실이 없거나 텐트를 칠 수 있는 지면이 아닐 수도 있다.

차박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도착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리 좋은 차박지라도 위치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다. 우선 모기와 벌레가 극성인 고인 물 근처를 피하고 도로와 농로, 침수 위험이 있는 낮은 지대와 벼랑 근처, 절벽 아래, 급경사 아래쪽도 멀리해야 한다. 확장형 텐트가 있다면 풀이 없는 지면·암반·자갈밭을 공략하자.

차박 고수가 <현대건설 사보신문> 독자에게 살짝 공개하는 '차박지 3'

완도를 내 품 안에, 완도 완도타워



산과 바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어떨까? 선뜻 답하지 못하고 선택 장애로 고개를 가우뚱하는 당신이라면 걱정 마시라. 완도라면 안심이다. 완도군 어디서나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청정자연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동망산 정상 완도타워에 오르면 시원하게 탁 트인 완도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발아래 산을 딛고 바다까지 한번에 만나는 것이다. 곳곳에 마련된 산책로는 꽃과 나무로 아름답고 밤이 되면 반짝이는 조명이 낭만적인 야경을 선물한다.

위치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06-1

구름 속의 산책, 단양 양방산전망대



양방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해발 664m의 전망대를 자랑한다. 굳이 하늘을 날지 않고도 남한강 물놀이(물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지형)와 단양 시가지를 한눈에 만날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덤. 밤이 되면 하나둘 불을 밝힌 단양 시내의 야경에 눈이 부신다. 이른 아침에 깨어나 바라본 운해가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까지 열게 물들여 마치 구름 속을 걷는 듯 아찔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위치 충북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길 350

고수들의 차박 성지, 맹동산 영양 풍력발전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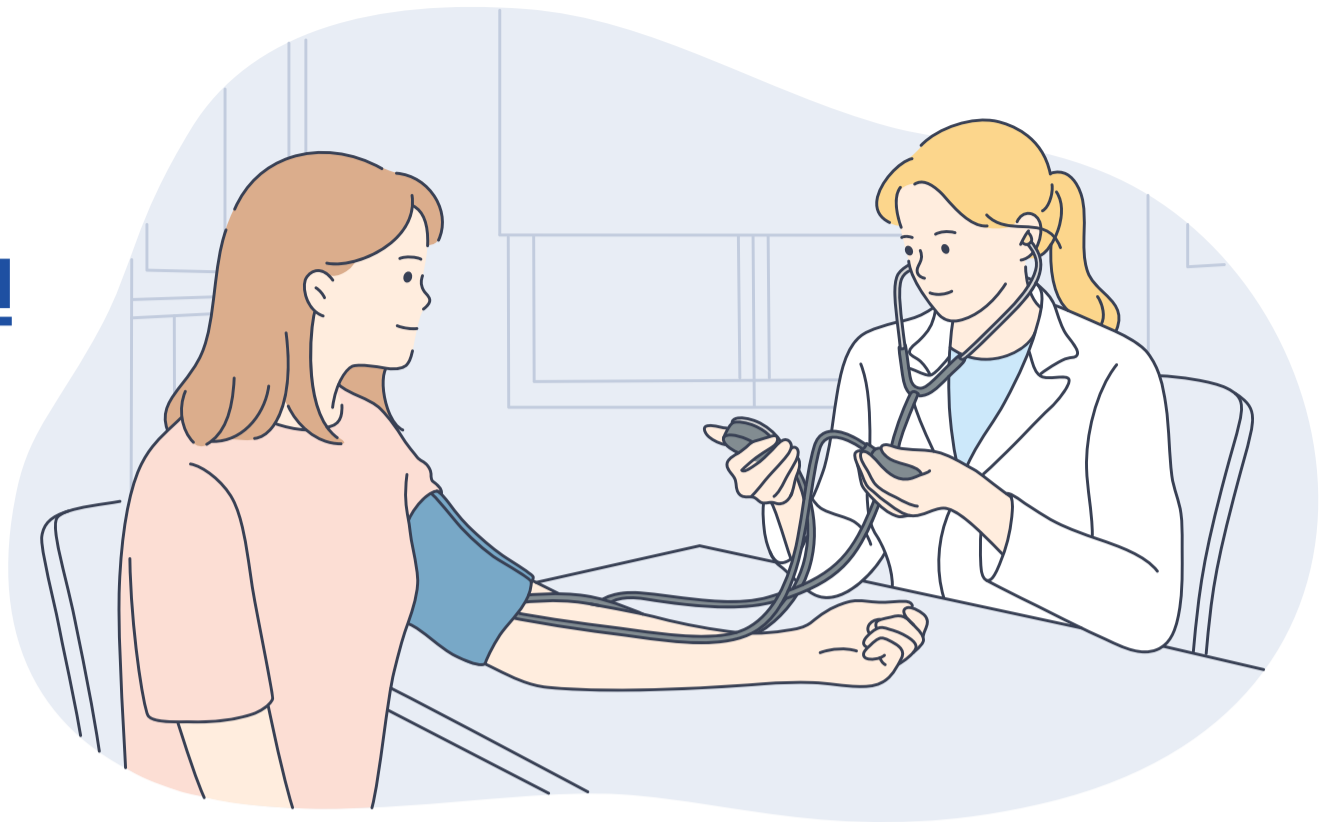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단지다. 정상에 펼쳐진 고랭지 채소밭은 너른 구름을 따라 드넓게 이어지고, 요즘같이 깊어가는 가을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황금빛과 은빛으로 물결치며 찬란하게 빛난다. 작은 목장에서는 동화에서나 볼 법한 풀 뜯는 소들이 여유롭다. 광해(光害)가 없어 어떤 하늘보다 밤하늘의 별들이 선명한 곳, 이른 아침에는 켜켜이 내려앉은 운해에 할 말을 잃는다. 무엇보다 새하얀 풍력발전기들이 아득히 먼 곳까지 사방으로 둘러 서 있어 국적인 정취가 압권이다.

위치 경북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40 일대

놓치지 마세요! 종합건강검진

현대건설 프리미엄 잊지 말아야 할 건강 체크. 우리 회사는 여러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종합건강검진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 보자. 글·정리=이진우



종합건강검진 신청 방법

총무지원시스템 내 검진 예약

- 1 오토웨이 > 총무지원센터 > 복지 > 종합건강검진 신청
- 2 원하는 병원 선택
- 3 검진 예약 일자 선택 및 검진 항목 확인
- 4 선택 검사 항목 비교란에 작성

신청 가능 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금강아산병원
한신메디피아	강남아트스캔	상계백병원
이대목동병원	한국의료재단IFC	녹십자(강남, 강북)
하나로의료재단(중로)	고대안암병원	은평성모병원
우리원헬스케어(중구)	일산동국대병원	울산대병원
부산대병원(아미동)	경북대병원(대구)	강릉아산병원

온라인메드 검진 예약

- 1 온라인메드 <https://hdec.onlinemed.kr> 접속 후 로그인 (ID: 사원번호 / PW: 생년월일 6자리(최초 로그인 시))
- 2 검진 예약 > 예약하기
- 3 원하는 병원 선택
- 4 검진 예약 일자 선택
- 5 선택 검사 항목 선택

- ✓ 신청 가능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 '병원별 검진 항목' 탭 통해 검진 항목 비교 가능
- ✓ 온라인메드 문의: 1566-7775

임직원 가족 검진 예약

- 1 검진 기관으로 직접 전화 예약
- 2 예약 시 회사명, 직원명 전달 후 법인계약가격으로 신청
- 3 증빙 서류 검진 당일 수납 시 제출
- 4 검진 비용 검진 당일 수납

지원 대상 및 검진 세부내용, 병원별 증빙 서류는 오토웨이 게시판에서 '임직원 가족 종합검진 할인가 이용 안내'를 검색해 주세요!



검진 신청 시 주의하세요!

✓ 종합건강검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오토웨이 > 게시판 > '임직원 종합건강검진' 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무지원센터에서 예약 완료 후 확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개별 연락이 없다면 예약 미정 상태입니다.

✓ 예약 신청 전 희망 병원의 검진 항목 브로슈어를 확인한 후 '선택 검사 항목'을 명기해야 합니다.

✓ 본인 지원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회사지원비용'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검진일로부터 한 달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주일 이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회사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병원에 직접 신청하면 지원 내용 확인이 어려워 혜택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배우자 검진 신청은 꼭 시스템을 이용해 주세요!

✓ 해외 근무자의 경우 비교란에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꼭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됩니다.

✓ 지원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진 비용은 전액 개인 부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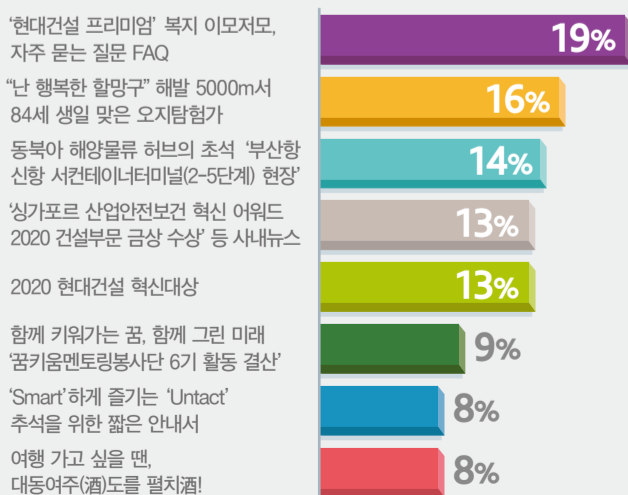
문의: 의무실 이예원 매니저(오후 1시부터 연락 가능)



독자 참여 코너

Be Together HYUNDAI E&C TODAY!

Q 391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가 더욱 재밌고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 '독자참여' 코너를 진행합니다.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11월호에서 읽고 싶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프로배구 개막 앞둔 힐스테이트 배구단 소식

#현대건설 인재 채용 방침과 직무 소개

#스마트한 겨울 레저 생활

#전국 방지순례

#재택근무 혹은 화상회의의 효과와 노하우



독자 의견 보내면 사보신문이 씁니다!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코끝 시린 요즘입니다. 이럴 때 '따아따뜻한 아메리카노의 줄임말' 한 잔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보신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QR코드로 보내주세요. 추천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1 QR코드를 통해 '독자참여' 코너 접속

- 2 재미난 질문에 응답하기 (꼼꼼한 답변은 당첨 확률 up!)
- 3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참여 기간 ~11월 9일(월)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1잔 / 5명)

 **운동템**

- 1 자전거 속도계 '가민엠티'**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면 속도계는 필수. 자신의 라이딩 평균 속도와 고도에 따른 속도 변화, 페달 밟는 횟수(케이던스)를 체크해 스스로 체력을 분배할 수 있다. 누적 라이딩 정보로 평소 주행 습관 등을 스마트폰과 연동해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초행길도 걱정 없다. 주행할 곳의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면 내비게이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아이템이다.
- 2 '보스 프레임 템포' 선글라스**
계절에 관계없이 자외선으로부터 시력을 보호하는 선글라스는 외출 시 꼭 필요한 아이템. 템포를 올리는 노래도 마찬가지로. 이 둘을 합친 오디오 선글라스가 보스에서 출시됐다. 스포츠용 선글라스로 땀에 강하며, 변색렌즈로 날씨에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다. 핸드폰과 페어링해 운동의 흐름을 깨지 않고 통화까지 가능하다.
- 3 몸의 밸런스 체크 '스마트 체중계'**
체중 관리는 많은 이의 숙원사업. 스마트 체중계는 단순 몸무게 뿐만 아니라 체지방, 근육량, BMI 등까지 측정해 줘 건강하고 세심하게 몸 관리를 할 수 있다. 콤팩트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거나 인바디를 측정하기 위해 헬스장까지 굳이 갈 필요없다. 스마트 체중계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집에서 관리하는 홈트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 '피크' '샤오미' 등 다양한 회사에서 스마트 체중계를 출시하고 있으니 구매 전 비교해 보길 추천한다.



 **일상템**

- 1 있으면 편리한 '스마트워치'**
핸드폰이 울리면 손목에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에 알람이 떠서 절대 전화나 문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알아서 신체 활동을 측정하고 질병 여부도 파악해 건강까지 케어할 수 있는 똑똑한 제품. 최근에는 '심박 기능 측정' '혈압 측정' '위치 공유' 등이 가능해 어르신도 많이 착용하는 추세다. 많은 회사에서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스마트워치의 가격도 천차만별! 사용하는 핸드폰 및 기능에 따라 선택지가 많으니 검색 후 필요한 기기로 구매하길 추천한다.
- 2 13회완충가능 '픽스셀 몬스터' 보조배터리**
핸드폰, 패드 등 여러 개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면 주목할 아이템. 이 보조배터리는 핸드폰을 최대 13회까지 완벽하게 충전할 수 있을 만큼 용량이 충분하다. 4개의 충전 포트가 탑재돼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것까지 문제없고 장시간 사용해도 출력 저하 없이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 3 패션도 스마트하게 '폴로 테크 스마트셔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 의류 브랜드도 뛰어들었다. 폴로의 스마트셔츠는 센서가 갈비뼈 쪽에 부착돼 있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심박수를 체크하고, 운동 시 에너지 소모량, 걸음 수 등 다양한 신체 정보를 수집한다. 옷과 스마트폰 앱을 연동해 신체·운동 전략 코치까지 받을 수 있다.
- 4 분실 방지엔 '타일 메이트 태그'**
스티커와 슬림 형태로 나와 있는 스마트 태그다. 슬림형의 경우, 6.2mm 두께의 사이즈로 평소 잘 잃어버리는 지갑 등에 넣어 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최대 60m까지 떨어져 있어도 위치 수신기가 능하니 물건을 잊은 채 움직여도 걱정없다. 열쇠나 핸드폰 등은 블루투스식 스티커 태그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일상이 1cm 편해지는 스마트 기기

편함과 불편함은 한 곳 차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말 안 해도 알 터. 스마트 제품을 사용한 이들이 입 모아 칭찬하는 기기를 소개한다.
글=강은비

 **펫팸족템**

- 1 자동으로 밥 주는 'Mookie'**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장시간 외출 및 여행이 쉽지 않다. 특히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경우 동물별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까다롭다. 사료 종류, 배식량 등이 다르다면 더욱. 이런 걱정을 덜어줄 자동급식기가 출시됐다. 기기에 달려 있는 카메라가 동물의 얼굴을 인식해 각자에게 정해진 정보에 맞춰서 급여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밥을 먹을 때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앱 알람이 울려 밥을 먹는 모습과 식사량까지 체크가 가능하다.
- 2 집에서 건강진단 검사 '알파도 펫케어'**
알파도 펫케어 키트를 통해 가정에서 반려동물의 소변으로 간편하게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키트를 구매 후 연동되는 스마트 앱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 소변이 묻은 시약 막대를 촬영하면 된다. 소변으로 알 수 있는 방광염·요로결석·신장수치 등 10종의 건강 결과를 분석해 현재 상태를 진단한다. 확진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 활용하기 좋으며 예민한 동물을 키위 평소 동물병원을 잘 방문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유용하다.
- 3 움직이는 CCTV '엠티봇 라일리'**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사람에게 제격. 고정형 웹캠을 써본 이라면 사각지대 때문에 움직이는 CCTV가 간절했을 것. 엠티봇 라일리는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숨어 있는 반려동물을 찾고, 동물의 호기심을 자극해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매달 사용료를 내는 웹캠과는 다르게 한번 구매하면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아 보호자의 지갑까지 생각한 착한 아이템.

